

대학의 학생선발 실태와 문제점

곽 신 환 | 숭실대학교 교무처장

I. 시험제도의 변화는 사회변동의 반영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학 입학률에서 강남구는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 지역에는 지(극)성스런 맹모(孟母)들이 모여 있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정보 취득이 빠른 엄마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독생자를 위하여 무슨 짓인들 못하랴 하는 심정에서 너도나도 강남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그 지역의 집값은 천정을 모르고 올라갔고, 상식을 뛰어넘는 집값 상승에 국민들의 아우성 난무하니 정치인, 시민단체, 교사 등 너도나도 나서서 온갖 처방을 다투어 내놓더니 마침내 재경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고유영역 침범의 시비를 벌이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중등교육의 평준화 문제가 국가적 핫 이슈가 되었고, 수준 높은 학원가의 유치가 도심 재개발이나 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물론 대학의 학생 선발도 다시 도마에 오르

게 되었다.

대학진학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아직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자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는 어느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 내일의 희망을 담보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고교평준화나 대입 제도와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이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광복 이후 우리의 대학입시체제는 크게는 15차례, 세부적으로는 36차례나 바뀌어 왔다고 한다.¹⁾ 입시제도개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제도 변경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피로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이러한 사실은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관련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는 큰 폭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으

1) 이현청,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제1주제, 2002년 11월 1일.

며, 변화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화된 요구가 대학 입시라는 보수적인 제도를 그렇게도 자주 바꾸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잦은 변화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징표가 된다.

입시제도가 반드시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합리적이지 못해서 바뀌어 온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국민적 압력, 사회적 요구, 선진 사회의 트렌드 등이 반영되어 있다. 1980년대초에 사교육비 경감을 내건 대학입학정원의 대폭 증원, 수도권 대학입학정원의 증원 불가 방침 고수, 최근 수도권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 한 것, 예비고사 → 학력고사 → 수능시험으로의 변경, 그리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제도 변경 등 그 동안의 굵직한 변혁이 사회적·정치적·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 교과목 선택의 다양화, 잠재적 능력 개발의 중시, 특성화 강조라는 세부 제도의 마련은 교육철학적 당위성과 선진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의 빈번한 개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일만은 아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기를 살리는 것에 있고, 이런 특징을 살린 2005학년도 대학입시는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그 방향과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틀에서는 국, 영, 수 위주의 학과성적 중심에서 잠재적 능력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가 전환되고 있다.

Ⅱ. 입시는 한 사회의 공정성·창조성·정의의 척도

모든 종류의 공적인 시험은 한 사회의 정의(正

義)의 척도가 된다. 시험만큼 사회적 압력이 큰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정직한 사회에서는 시험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창조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특히 창조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시험이 한 사회가 보다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폴 틸리히 같은 사람이 말하는 창조적 정의(正義)와 관련을 갖는다. 즉 개인의 가능성에 투자하고 능력발휘에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그 사회는 매우 창조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시험은 선발기능도 있고 교육기능도 있다. 그 선발시험의 조향이 한 사회가 함의 또는 부여하는 가치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 척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분야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험을 통과하여 특정 집단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서 집단과 공동체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는 응시자들이 그 합격을 위해 결사적일만큼 집중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의 대학입시도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 시비가 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조선시대의 과거 역시 끊임없는 시비의 대상이었다. 과거의 본질에 대한 논란, 그 폐단의 지적, 시험부정에 대한 시비 논란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시험이 정당하게 치러진다 하더라도 시험의 과목이나 방향에 대한 시비 역시 끊이지 않았다. 즉 경전이나 암송하고 문장이나 잘 짓는다고 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논란도 있었고, 시무(時務)에 어두운 자, 공허한 이론에만 능한 자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어떤 때는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인재를 선발한 일도 있었고, 산림(山林)이라 불리는 초야의 학덕(學德) 높은

“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흥미, 특기를 살리는 것에 있고,
 이런 특징을 살린 2005학년도 대학입시는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그 방향과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 틀에서는 국, 영, 수 위주의 학과성적 중심에서 잠재적 능력과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가 전환되고 있다.

”

자를 초빙하여 높은 관직을 제수한 일도 있었다. 현량과의 설치로 선비들 가운데는 과업을 폐기하고 ‘소학(小學)’ 등 바른 행실과 실천적 수양에만 힘쓰는 풍토가 조성되기도 하였고, 산림 우대로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관리 선발을 경전 암송이나 문장짓기의 시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하듯 대학입시도 수능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그래서 비교과활동의 반영이나 특기생을 찾아내거나 조기에 영재를 발굴·영입하는 등 대학입시는 이전에 비하여 매우 다양화되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정성, 적합성, 그리고 개방성을 갖추고 있다.

Ⅲ.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의 실제와 문제

현재 대학에서의 선발 유형과 그에 따른 원리 또는 철학은 무엇인가? 현행 제도, 그리고 2005학년도 대학입시는 시기적으로 수시 1학기·2학기, 그리고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의 모집으로 우선 구별된다. 수시모집 1학기과 2학기는 내

용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학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隨時)는 ‘때를 따라서’의 뜻인데 ‘때를 따른다’는 말은 어디서든지 매우 유익하고도 정당하고 타당성을 갖는 개념이다. 때를 잘 택하여야 우리는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時)’는 ‘때’이기도 하지만 상황이기도 하다. 즉 ‘수시’는 ‘상황에 따라서’의 의미도 갖는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에 대하여 허용하는 수시입학제도는 글자 그대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못되는 듯하다. 그것은 겨우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정한 시기 안에서 임의로 때를 정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라는 일종의 제한된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없었던, 대학에 자율권을 제공한 제도인 셈이기는 하지만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시(定時) 모집은 글자 그대로 ‘때를 정하여’, 또는 ‘정해진 때’에 치르는 입시이다. 이는 정부에서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기간을 설정

하여 주고 제한된 테두리에서 학생선발 제도를 한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다중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다. 다만 정시(定時)는 정시(正時), 즉 대학입시에 가장 바른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해진 시기가 과연 정시(正時)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테두리 안에는 여러 유형의 전형이 들어 있다. 수시모집 전형에서의 기본적인 고려 사항은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정상적 과정을 이수하였는지를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부 교과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여기에 이른바 특기를 지니고 있는 또는 특정 방향의 재능을 인정받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각종 경시대회입상자, 학생부 성적 우수자, 텔런트, 운동선수 등이 일찌감치 합격증을 받아드는 것이 이 수시 모집이다. 상당수 대학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원서를 접수하여 대학 나름의 검증장치를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이 일찍 대학입학을 보장 받았다면 그리고 이제 대학입학이 보장된 학생이 더 이상 입시준비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발전, 특히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자기 전공분야나 교양의 폭을 넓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합격자는 적어도 3학년 2학기부터는 입시에 대한 부담 없이 한껏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미리 자기가 전공하고픈 분야의 기초연구를 할 수도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부담으

로 작용한다. 남들은 고교 3년간의 생활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시험을 치르는 데 반하여 이들은 2년간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다른 한편 이 제도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1학기부터 입시현장으로 출입하게 함으로써 대학으로서도 1년 내내 상시 입학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으며, 고3 교실 역시 1년 내내 당락의 희비로 분위기를 혼란시키고 있다. 1학기 수시모집 응시자는 합격판정을 받은 후 대다수가 체계없는 교육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시간을 허송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부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8개월 정도를 결과적으로 파행적으로 고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긴장 속에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학문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우에도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1학기 수시모집은 이 같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치 장사꾼의 입도선매(立稻先賣) 방식으로 입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1학기 수시모집을 계속한다면 대학은 이들 합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1학기 수시모집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더 정당성도 있고 효율성도 높은 것 아닐까 한다. 최근 서울지역입학처장협의회회장단에서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 당장 2005학년도 입시부터 1학기 수시모집을 폐지하자고 교육인적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2학기 수시모집은 1학기 수시모집에 비하여 다양한 전형요소를 갖고 있다. 주로 특기생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대학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별전형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제도의 설립 취지는 나무랄 데 없으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예를 들면, 본교의 경우 '봉사활동우수자 학교장 및 목회자 추천'이 있다. 그런데 봉사활동우수자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 단순히 봉사의 종류나 시간 수, 헌혈 횟수 등을 양적으로 계산하여 내는데 대부분의 추천서나 인증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형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가 상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기록에 남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더구나 상대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천서에 객관적 평가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추천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대학도 생겨났다. 바른 전형을 위해서는 추천서나 인증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다투는 전형기간에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이다. 갑자기 늘어난 각종 형태의 경시대회를 인하여 그리고 대학마다 내세운 특기자전형제도에 할당된 일정 인원이 있는 까닭에 여기에 객관적으로 그 재능이나 특기가 인정되지 못한 경우가 스며들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년 내내 외국에서 프로스포츠 투어를 벌이는 유명선수에게 경쟁하듯 입학자격을 부여하거나, 객관적 학력을 보증할 수 없는 연예인들에게 특기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입시를 희화화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수능시험 최저요구선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수시모집 2차 합격자 중 상당수가 수능의 최저요구선을 넘지 못하여 대규모로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력의 저하라는 관점에서 한동안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그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적극적 개선은 모색되지 않았다. 수시모집 합격자를 선발에 사용된 고등학교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수능시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 후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시험에 무심하여 성적이 나빠진 것인지 확인된 것이 없고, 어쩌면 그 미칠 과정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학기 수시모집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것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는 것과 학생들에게 입시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모집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전체 모집정원의 3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중시하는 요소는 수학능력시험성적이다. 정시모집에서는 수학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결과에 있어서는 수능시험성적이 가장 객관성있는 선발 방법이라는 셈이 된다. 그런데 현재의 수능시험은 과거의 학력고사와 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명칭의 차이 이외의 본질적 차이가 표방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래는 고득점자 분포가 재학생에 비하여 재수생에게서 절대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불합격자는 물론 합격자들도 보다 나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삼수에 반수(?) 형태로 보습학원을 선택하는 것을 부추기는 셈이 되었다.

정시모집에서는 가, 나, 다 균을 두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지원자에게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지원자 및 합격자의 허수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수험생의 지원기회 확대라는 대

전제에 묻힐 만하다. 때로는 입학정원의 적어도 3 배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어야 겨우 등록미달을 면할 수 있는 심적 고통이나 2월 한 달 내내 합격자-예비합격자 교체와 미등록자충원절차에 매달리게 되는 행정적 수고도 감수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지원자의 총수가 입학정원을 밑도는 상황에서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것은 사치에 속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NEIS, CS의 갈등과 그 예상되는 혼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입시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NEIS 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당위이다. 인권은 사실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훼손 또는 희생당할 수 없는 가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단지 행정적 효율성을 내세워 강제해서는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권과 시스템과의 관련이 절대적인지에 대한 반성, 교육행정에 있어서 인권과 행정적 효율성과의 결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한 고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두 집단 사이에 어떤 불신과 미움이 미리 자리하고 있어 이것이 시스템을 두고 분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Ⅳ. 대학의 요구와 고등학교의 목표 사이의 갈등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입시가 반드시 고등학교 본연의 교과교육 기간을 충실히 보낸 것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가 제도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분

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하나하나 판단하여 참고할 필요는 없다.

대학입시는 그 자체로 그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다.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것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루어 내는 데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는 대학의 고유 권한이어서 남들이 무어라고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특정한 목적을 지닌 사립대학이라면 그 정도가 덜하겠으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다수 별다른 특성화가 없이 공통의 또는 비슷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정해 주는 결정적 역할도 수행한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좌우하게 되니 자연 고등학교 현장과 대학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정대학이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요강 안을 두고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적극 반발하는가 하면, 그에 맞추어 서둘러 교과를 수정하거나 조정하였다. 그들 때문에 애써 마련한 7차교육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행을 빚는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고,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지도·통제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서는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을 갖춘 인재를 고등학교가 길러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변별력이 만족스러운 입시제도가 못되어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미 어떤 대학은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전 과외를 계획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또 시험의 선발기능에 대한 불신 표출이 어디 있겠는가?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이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제 31조 1항). 대입제도는 고등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

“

대학입시는 그 자체로 그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일차적 기능이다.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것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을 이루어 내는 데 관건이 된다.

”

영과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대입제도가 대학에 입학할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고교교육 본연의 가치도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사회는 고등학교가 본연의 보통교육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대학의 요구에 맞춘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나름으로 만든 제반 기록을 신뢰하고 필요한 지원자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사실 현재 마련하고 있는 2005학년도 대입제도는 이런 정신에서 개혁한다고 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큰 틀에서는 2002년, 2003학년도에 실시한 제도와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7차교육과정의 정상적 착근을 염두에 둔 제도이다. 대다수의 관련자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信賴)와 인내(忍耐)일 것이다.

대학이 고등학교를 믿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중요 고려인자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신뢰와 기대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신뢰가 없으니 인내도 하지 못한다.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의 상호신뢰를 지켜 주는 마지막 보루(堡壘)인데, 이를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추천제도 등에 내맡기면

마치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치명적으로 손상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사의 평가와 추천서를 신뢰해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단시일에 정착되기 어렵겠으나 포기할 수 없는 방향이고 과제이다.

V. 선택의 상충(相衝)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입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인교육을 위한 과정이냐, 직업훈련을 위한 것이냐, 또는 건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한 과정이냐, 아니면 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이 모든 것은 함께 걸려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기하는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가 수요자 선택 중심의 교과운영이라고 한다. 시각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교교육의 수혜자는 대학이고, 대학교육의 수혜자는 사회요,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과 사회가 대학에 대하여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능을 갖춘 인재를 대학이 길러내지 못하여, 입사시험을

치러 선발한 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의 교육에 상당 기간과 비용이 든다는 불멘 소리를 한다. 최근 주요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원 그리고 대학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과목을 조사·정리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에 제공해 준 일이 있는데, 대학으로서는 그 요청과 친절이 반갑고 고맙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학도 고등학교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였음에도 그들이 대학교육을 따라갈 만한 수준의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여 별도 과외를 시켜야 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강제성과 자발성 사이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기업의 요구에 맞추는 이른바 맞춤형교육을 시도하겠다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대학의 요구에 맞추는 교육을 하겠다는 고등학교는 이미 벌써부터 있었고.

오늘의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처방 중의 하나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능력 위주의 사회 지향이다. 즉 학력 중시가 아니라 실력 중심의 인선이 속히 정착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대학간에 학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간에 실력차가 있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기업체가 면접에 있어서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판정해 놓아, 낮은 등급 출신대학 응시자는 필기과목에서 아무리 탁월한 점수를 받는다 해도 구조적으로 높은 등급학교출신을 넘어설 수 없게 해 놓았다는데, 그 기업체의 인재선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나 일반이 이를 반대한다고 하여 폐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골품제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

가가 쇠퇴하였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학벌에 매인 인재 선발은 한 사회를 붕괴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동아시아 고대사회에서도 신분과 무관하게 어진 자를 높히 받들고 [존현(尊賢)],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 [사능(使能)]은 이념을 표방하였듯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마지막 봉건적인 요소인 대학 학벌중시의 의식을 깨버려야 한다.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는 학교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특정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규모로 재수·삼수를 마다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최고의 인재가 특정 소수의 대학에만 몰려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재를 재수·삼수로 내모는 사회,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면 이는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방지되는 것도 아니다.

은행에서 대기표를 받게 하는 발상 하나가 단시일에 은행 창구의 무질서를 해결하고, 대기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선용할 수 있었듯이 인격적 요소 이외에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기관과 기관이 상호 신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특성화가 가능해지면 선발도 자율화될 수 있고 선발이 자율화되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고교교육의 파행은 전국 대학 한 줄 세우기, 따라서 수험생 한 줄 세우기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Ⅶ. 평가와 시혜의 정의(正義)

결국 입시는 인간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시혜의 성격을 갖는다. ‘주역’에 칭물평시(稱物平施)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사물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풀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저울질이라 하였지만 흔히 말하는 도·량·형(度量衡)이 모두 여기 해당한다. 대상의 길이, 각도, 부피, 무게 등을 재는 것은 삶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속한다. 입시를 두고 말하면 저울질하는 것은 대학이요, 평가원이다. 저울질 당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다. 베푸는 것은 입학자격이다. 문제는 저울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고르게 하는 것이냐이다. 이 문제에 대해 권근(權近)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릇에는 크고 작은 분량의 차이와 모나고 둥근 형태의 차이가 있다. 그릇의 분량을 헤아려서 큰 그릇에는 많이 담고 작은 그릇에는 적게 담되, 모든 그릇에 같은 백분율로 담아야 고르게 베푸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에 대한 차별적 평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차별이 수용 가능한 것이요, 합리적일 수 있음은 그 그릇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대상에게 똑같은 백분율로 베푸는 것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울질하는 대상과 저울질 자체에 있다. 저울질할 때는 저울추를 잘 옮겨 평형을 유지하면 정의로운 저울질이 된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것처럼 수월하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솝우화처럼 여우와 두루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은 각각 달라야 한다. **대학 교육**

곽신환

송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만 한학연구중심 및 미국 뉴욕주립버팔로대학교 철학과 객원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파견교수, 송실대학교 학생처장, 교육대학원장, 한국동양철학회 편집이사, 연구이사, 한국주역학회총무이사, 서울지역입학처장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송실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주역의 이해』, 『철학에의 초대』, 『중국철학의 정신』, 『직하철학』, 『주자언론동이고』 외 다수가 있다.